

광주 광산구 거주 아프리카 노동자들 남아공보다 뜨거운 '응원 월드컵'

외국인근로자센터 모여
자국 대표팀 승리 기원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광주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학생들이 힘든 미국 생활 속에서 같은 아프리카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월드컵 사상 첫 아프리카 개최에 개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물론 나이지리아·가나·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노동자 20여명이 지난 17일 밤 11시 광주시 광산구 도원동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에서 나이지리아 응원에 나선 것이다.



“나이지리아 이겨라”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에 모인 아프리카인들이 지난 17일 밤 TV 앞에 앉아 월드컵 예선 나이지리아-그리스전을 시청하며 나이지리아 팀을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이지리아는 8년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자국인들의 16강 진출 기대는 그만큼 높았다. 자국의 월드컵 경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국비장학생 토크(27)씨는 “나이지리아가 2패를 해 아쉽지만 남은 경기에 따라 얼마든지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며 “한국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꼭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컵 개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학생들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자부심을 숨기지 못했다. 광주 시내 어딜 가나 TV를 통해 자국의 경기장을 보여준다는 케빈(22·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 1년)씨는 “직접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전 세계인들이 모두 하나돼 월드컵을 응원해주시니 신난다”고 활짝 웃어보였다.

이들은 TV중계가 끝나면 한테 모여 인터넷으로 월드컵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국의 경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일하느라 바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 축구경기를 보는 것은 일상 속의 큰 기쁨이라는 것. 가나에서 온 근로자들은 자국의 대표팀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아타(47)씨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며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가나 축구팀의 경기는 어디에서든 화제가 되며 가나가 준결승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와 학생 등 20여명은 오후 8시부터 센터 내에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전부터 지켜보며 탄성과 환성을 연발했으며, 33m의 센터 거실 한 칸에서는 10여명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왁자지껄하게 23일 대한민국과의 승부를 예측하며 내기를 하고 있었다. 이날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빨간 응원티셔츠를 사서 입었다는 제재(20)씨는 “한국이 나이지리아를 2대 0으로 이길 것”이라며, “박지성과 차두리를 좋아한다. 한국 화이팅!”을 외쳤다. 하지만 옆에 있던 파코(28)씨는 “나이지리아가 3대 0으로 이길 것”이라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며, 나이지리아의 승리를 자신했다.

아르헨전 패배 탓김에 ... 음주사고 잇따라

18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쉐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던 박모(32)씨가 김모(45)씨의 라노스 승용차를 추돌했다. 동료와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술을 마신 박씨는 사고 직후 1km 가량 달아나다 뒤쫓아온 이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7일 밤 11시에는 서구 금호동 금호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여·23)씨가 앞서가던 최모(여·35)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하는 등 하룻밤 새 광주지역에서만 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 해질 19시 50분 / 달돋이 12시 36분 / 달짐 --시--분

장맛비 잠시 멈춤
장마전선은 소강상태를 보이며 하루종일 구름이 많았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 많음	21/30℃
목포	구름 많음	20/26℃
여수	구름 많음	20/26℃
완도	구름 많음	19/26℃
구례	구름 많음	20/30℃
해남	구름 많음	19/26℃
장흥	구름 많음	19/26℃
고흥	구름 많음	19/28℃
순천	구름 많음	20/28℃
영양	구름 많음	20/27℃
전진	구름 많음	19/26℃
전주	구름 많음	21/29℃
남원	구름 많음	20/27℃
옥산도	구름 많음	17/22℃

지역별 날씨: 서울(구름), 인천(구름), 대전(구름), 광주(구름), 부산(구름), 대구(구름), 전주(구름), 목포(구름), 여수(구름), 제주(구름)

지역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높음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높음	경고	낮음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포	07:21~19:57	00:00~12:42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1.5m	여수	02:00~14:48	08:17~20:4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1/28	21/29	22/29	22/29	21/29	22/30

“4급 승진자에게도 수천만원 받았다” 전주언 서구청장 수뢰혐의 추가

검찰, 선거법 위반은 2년 구형

인사비리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언(62) 광주시 서구청장이 5급 승진자뿐만 아니라 4급 승진자에게 승진 인사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원들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청장에게 징역 2년(57·4급) 국장·오모(44·5급) 동장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F-5F 전투기 또 추락 ... 2명 사망

어제 동해상 ... 기체 결함

18일 오전 10시33분께 강원도 강릉의 제18전투비행단 소속 F-5F(제공호) 전투기 1대가 기지로 복귀 중 동해상에 추락했다.

F-5F 전투기는 이날 오전 9시43분 강릉기지를 이륙해 태백 필승사격장에서 공대지사격 임무를 수행한 뒤 기지로 귀환하다가 기지에서 1.8km가량 떨어진 동해상에 추락했다.

월드컵 트렌드 2題

CGV 광주터미널서 3D 응원 해보니 “공이 내 앞으로 튀어오더라”

“공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바로 옆에서 패스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 광주시 광천동 CGV 광주터미널에서 3D로 아르헨티나전을 관람한 이호재(3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경기 내내 탄성을 멈추지 않았다.

할 방침이었으나 신용카드사에서 이를 모두 사들여 고객들에게 서비스했다”며 “23일 나이지리아 경기의 3D 응원전은 좌석 당 1만원에 일반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23일 오후 5시 현재 480석 중 400여석이 이미 판매 됐다”고 말했다.

모든 경기 밤 10시 30분 이후에 끝나니 콘돔 등 성인용품 판매 ‘불티’

2010 남아공 월드컵 응원 열기 속에서 유통업계의 콘돔과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부쩍 늘었다.

나면서 젊은층들이 귀가보다는 술자리와 외박을 즐긴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며, 당시 ‘월드컵 베이비’라는 용어까지 유행했었다.

나원침 (8051) 김장두



초등학교 주변에 순찰함 설치한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에 순찰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값비싼 공공용 소나무 민간업자에 불법 매각

경찰, 영광군 공무원 수사

공공용 소나무가 민간업체 등에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 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5.33대 1 경쟁

17일 2011년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60명 정원에 320명이 지원해 5.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부해라” 꾸중하며 여고생 몸 더듬
○“광주북부경찰은 18일 초등학교에서 얘기를 나누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이모(50·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락사고 건수는 10건에 달하며 14대의 전투기가 추락했다. /연행뉴스